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Fertility Trends in France After Economic Cri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론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합계 출산율은 2009년 1.99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 하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3년 1.65명까지 하락하였다가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가깝게 회복되었으며 경제 위기에도 이러한 출산 수준은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정책의 시사점은 출산율이 하락한 이후에 정부가 대대적인 출산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국가 주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에 있다.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러한 국가적 전통을 국가가 가족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지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1945년 부터 가족 부양에 대한 지원을 국가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저출산 정책을 국가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목적하고 있는 북구 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리고 아동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에서 모두 출산율이 높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추이 및 최근 현황을 고찰하고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프랑스의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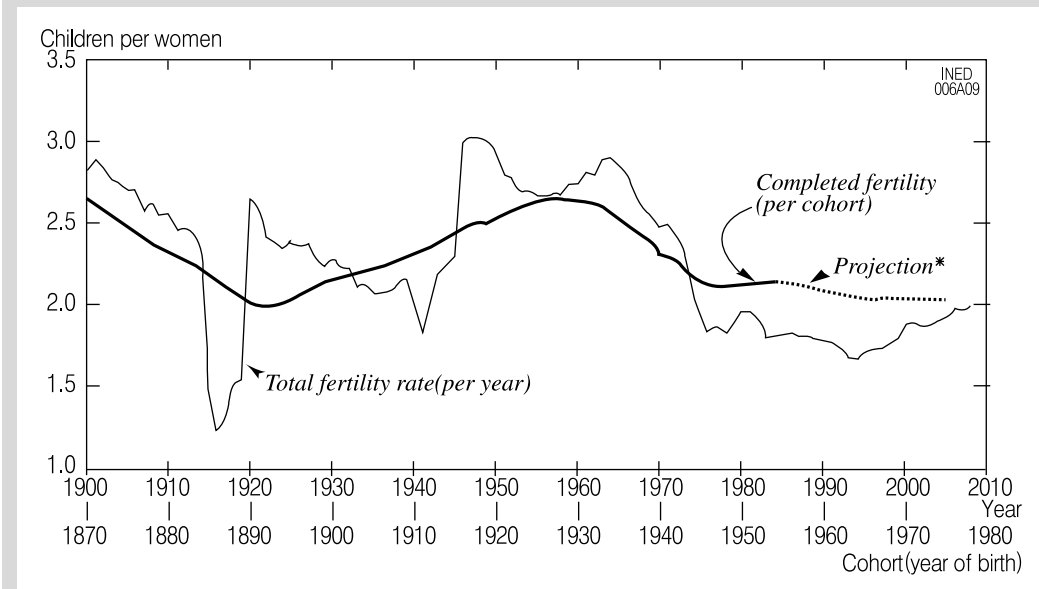
2. 프랑스의 최근 출산 현황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차 세계 대전 종전 및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를 제외하고 1975년 이전까지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5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여 1993년 가장 낮은 수준인 1.65명으로 하락하였다. 출산율이 회복세로 접어들게 된 것은 1994년 부터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1.99명의 출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

프랑스 출생아수는 1982년 823,260명에서 1994년 740,774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0년 출생아수는 828,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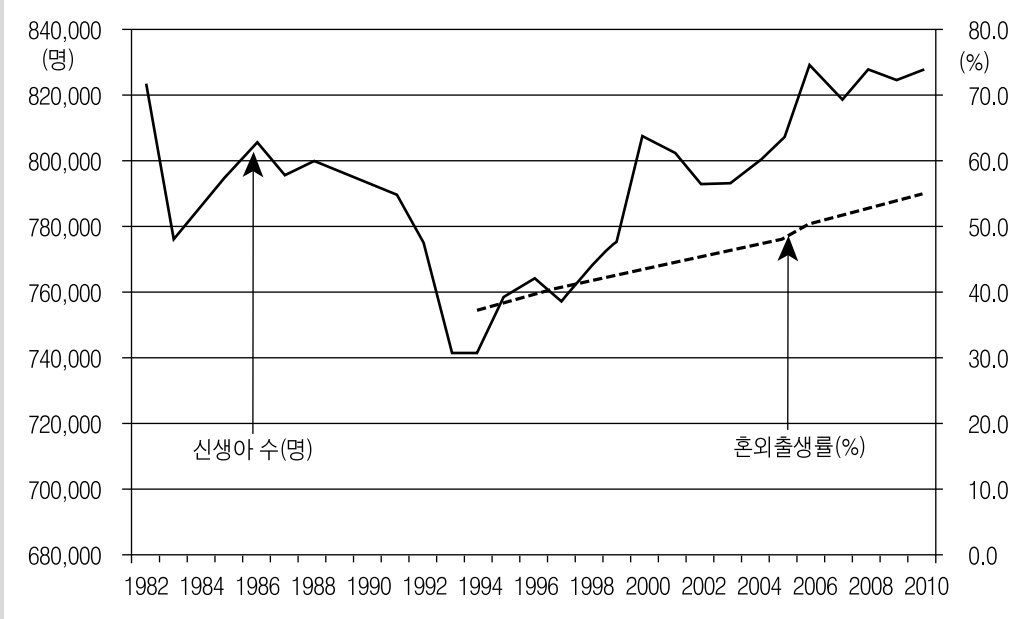
까지 증가하였다. 2010년도 출생아의 절반 이상인 55.0%는 혼외 출생아이다. 혼외 출생 비율은 1994년 37.2%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출생아 수 추이는 프랑스에서 고령 출산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1994년과 2010년 여성 100명 당 출생아 수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가임기 초반인 15~24세 여성의 경우 약 3명, 25~29세 여성은 12~13명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가임기 후반에 해당하는 30~34세 여성은 1994년 9.4명에서 2010년 13.3명, 35~39세 여성은 3.8명에서 6.4명, 40세 이상 여성은 0.4명에서 0.7명으로 증가하였다. 프랑스 여성의 초산 연령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24.4세이었던 초산 연령이 1995년 28.1세를 기

그림 1. 프랑스 출산율 추이(190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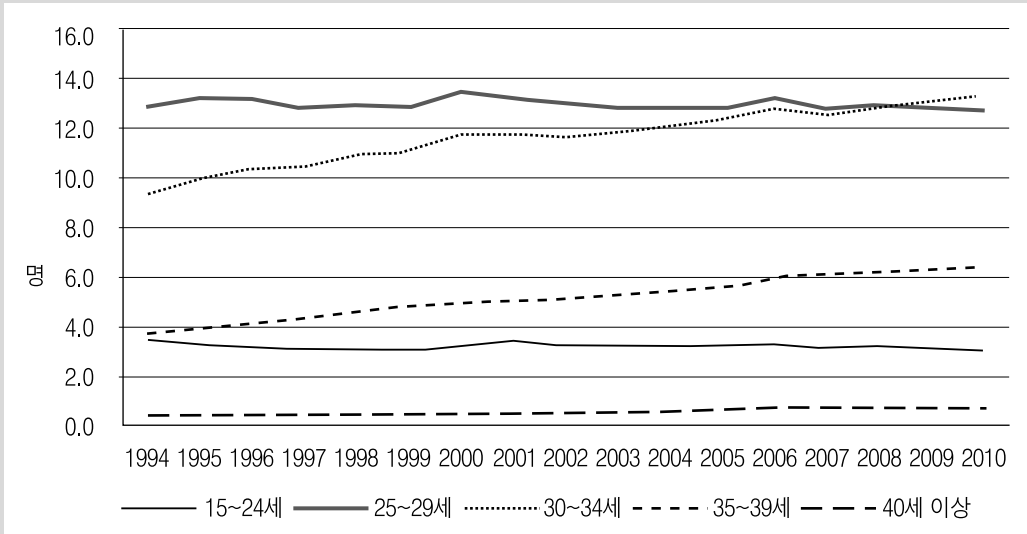
자료: Pison(2009), France 2008; Why are birth numbers still rising?, Population & Societies 454 INED.

그림 2. 프랑스 출생아 수 및 혼외 출생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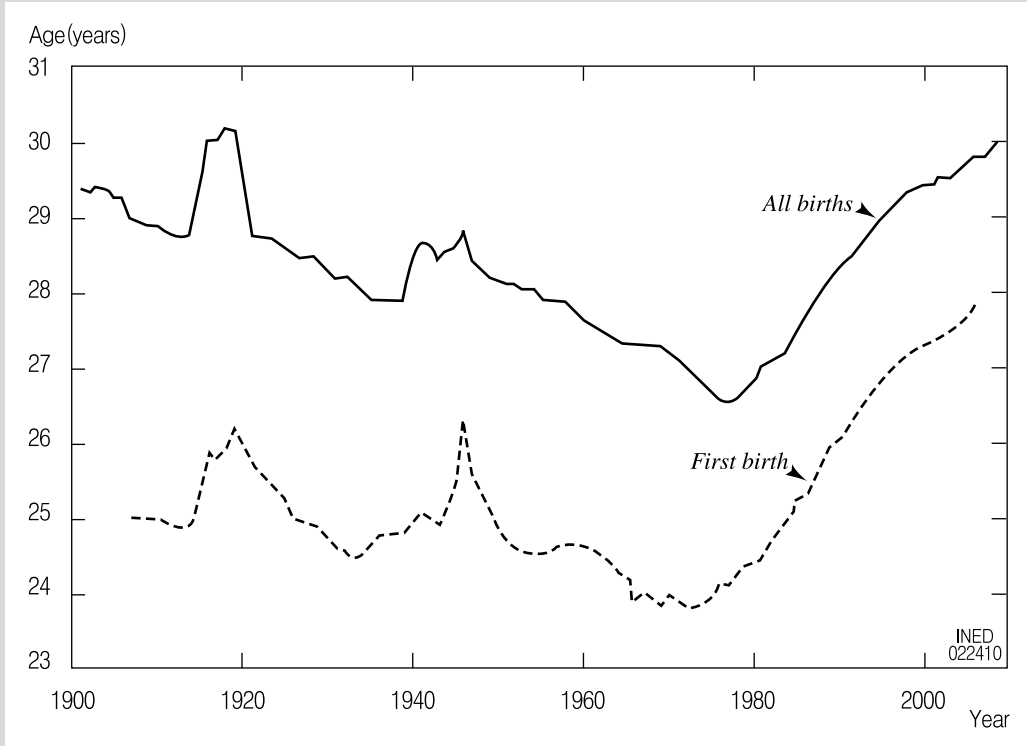
자료: 프랑스 Insee (2011).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그림 3. 프랑스 여성 연령별 100명당 출생아 수(1994~2010년)



자료: 프랑스 Insee(2011).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그림 4. 프랑스 여성의 자녀 출산 연령 추이(1990~2009년)



자료: Pison(2010). France 2009, Mean age at childbearing reaches 30 years, Population & Societies 465 INED.

특하였으며 2009년 30세로 증가하였다.

3. 프랑스 출산율 회복의 배경¹⁾

프랑스 합계 출산율이 1993년 저점을 찍고 상승기조도 돌아 선 주요한 이유는 여성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아이 낳는 시점을 늦추었을 뿐 전 생애 가임 기간으로 본다면 과거 여성과 비

슷한 수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1970년 부터 프랑스 여성의 자녀 출산 시점이 늦어지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은 코호트 여성들은 이미 출산을 완결한 반면 젊은 코호트 여성들은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1980~1990년대 초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회복하게 된 것은 여성들이

1) 본 절의 내용은 'Pison(2009). France 2008: Why are birth numbers still rising?, Population & Societies 454 INED' 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출산 시기를 늦추기만 하였을 뿐 30대 중후반 나이까지도 과거 여성과 비슷한 2~3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다. 피임도구의 발달로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출 수 있었으며 늦은 나이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힘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1990년대 초반 출산율의 하락은 가임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춘 것에 따른 단계적인 출산율 하락이었으며 이후의 출산율 상승은 여성이 30세 이후의 연령에도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출산율 변화의 특징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완결 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rate)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출산 수준은 합계출산율로서 측정된다. 특정한 연도의 합계 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그 해까지 몇 명의 아이를 낳았는지 각 연령대별로 여성 1000명당 낳은 자녀 수의 평균(연령별 출산율)을 구한 후, 이러한 35개 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합하여 구한다.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임 여성이 합계 출산율 측정 연도 시점까지 낳은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합계 출산율이 가임 여성이 당해 연도까지 낳은 자녀 수를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가임 기간이 최종 연령인 49세에 다다른 여성을 제외하고 여성의 전

체 가임 기간 동안 낳은 자녀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여성이 전체 가임 기간 동안 낳은 자녀수를 반영하여 구하는 출산율은 완결 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rate)이다. 완결 출산율은 49세까지 생존한 여성이 전체 가임 기간에 낳은 평균 자녀 수이다. 따라서 완결 출산율은 당해 연도에 50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여성에 대해서만 구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2010년에 50세 혹은 그 이상 연령에 도달한 1961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에 한해서만 구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30세에 도달한 여성의 경우 아직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시점에서 이들의 완결 출산율을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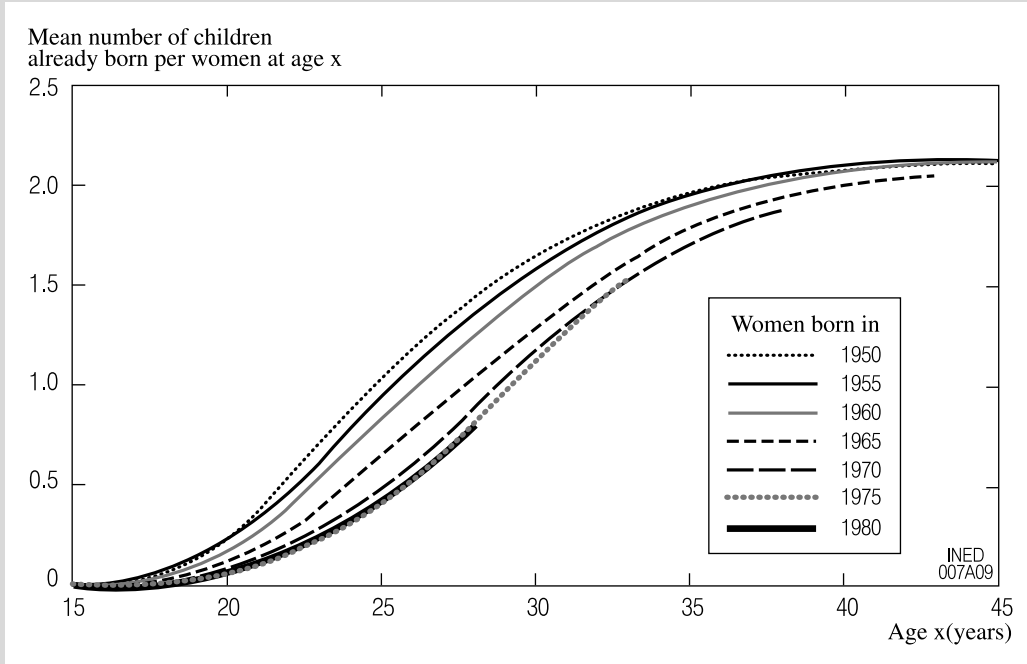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 그래프를 통해 프랑스 여성의 출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 출산 연령은 1950~1970년대생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여성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출산하여 과거 여성들과 비슷한 수의 자녀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경제 위기가 출산 행태에 미친 영향²⁾

프랑스의 출산율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2) 본 절의 내용은 'Pison(2011), Two children per woman in France in 2010: Is French fertility immune to economic crisis?, Population & Societies 476 INED' 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그림 5. 프랑스 여성의 완결 출산율(2009년)



자료: Pison(2009), France 2008: Why are birth numbers still rising?, Population & Societies 454 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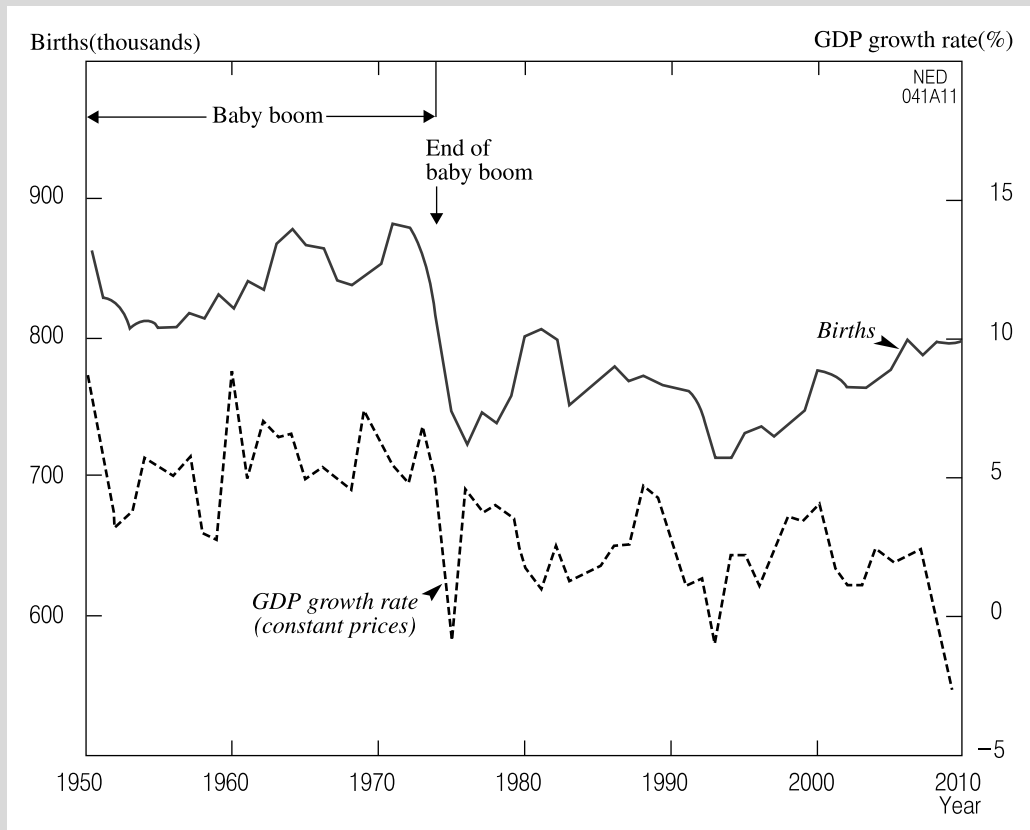
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0년에 출산율이 하락하기 보다 오히려 약간 상승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출산 행태의 양상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10년 총 출생아 수는 797,000명으로 2009년 793,400명 보다 오히려 증가 하였으며 1982년 이후 최대의 출생아 수로 기록되고 있다(Insee, 2011). 2010년 합계 출산율도 2.0명을 기록하여 2009년 1.99명 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출산율은 35년 전 베이비 붐이 끝난 이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다. 경기 후퇴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졌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증가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는 실업자 수의 증가를 가져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통념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외환 위기 이후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2.12명을 기록하던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2008년 2.08명, 2009년 2.01명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 7월과 2010년 6월 사이의 출생아 수가 3% 감소하여 미국의 2010년 합계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출생아 수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정하게 700,000~900,000명 사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출생아 수는 GDP 수준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연관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최근까지 GDP 수준과 프랑스 출산율 변화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52~1953년 GDP 하락 이후 1년 뒤에 출생아 수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1958~1959년 GDP

수준이 또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의 GDP 감소는 증가하고 있던 출생아수 추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출생아수는 1960년에 약간 감소한 후 1961년 다시 증가되었다. 오일 쇼크 이후 1975년 프랑스의 GDP 수준은 하락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출생아 수도 감소되었다. 이는 오일 쇼크로 인한 영향력과 더불어 베이비 붐이 끝나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맥락과 함께 하고 있다. 한편, 1993년 GDP의 감소는

그림 6. 프랑스 출생아 수와 GDP 성장률(1950~2010년)



자료: Pison(2011). Two children per woman in France in 2010: Is French fertility immune to economic crisis?, Population & Societies 476 INED.

1993~1994년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2008년 경제 위기는 2009년 GDP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졌으나 출생아 수는 2009년 전 기간을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과거 60년 기간을 돌이켜 볼 때 경제 위기는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독 예외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는 출생아 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 2007~2008년도는 대부분의 서방 국가 특히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에서 저출산 혹은 초저출산 기간을 벗어나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기간이었다.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아진 부분적인 이유는 출산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된 원인에 있다.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아진 시점은 나이가 많은 코호트 여성들은 이미 출산을 종결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은 반면 나이가 어린 코호트 여성들은 자녀 낳는 시점을 늦추어 아이를 낳지 않는 시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가하던 초산 연령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아이를 낳는 시점을 늦추었던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과거 여성들이 낳았던 수만큼의 아이를 낳게 되자 출산율은 회복되는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³⁾.

2007~2008년 외환 위기의 여파는 출산율 회복을 보이던 서방 국가의 출산율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다. 출산율 상승을 보이던 러시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경기 침체는 출산율의 상승 추이를 멈추게 하였다. 스페인, 영국, 체코, 에스

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선진국으로서 출산율이 높은 미국에서조차도 2007년 2.12명이던 출산율이 2009년 2.01명으로 하락하였다.

프랑스는 지난 30~40년 동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한 출산율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출산율 감소는 유일하게 30세 이전의 여성들에게서만 관찰되고 있다. 30세 이전 여성의 출산율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09년과 2010년에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30세 이전의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림 3). 30세 이전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춤에 따라 감소한 출생아 수는 30세 이후 여성들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출산을 실현함으로써 상쇄되고 있어 이 결과 프랑스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컨대 최근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외환 위기로 인한 경기 후퇴가 다른 나라보다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아 프랑스 경제에 영향을 덜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출산율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프랑스 가족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위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에서 발달한 사회 정책과 가족 정책이 경제 위기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3)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대하여 완충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5. 이민자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⁴⁾

프랑스에서 높은 출산율이 관찰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외국인 여성의 높은 출산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이 프랑스 전체 합계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이 프랑스 여성의 출산율 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1999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의 출산율이 1.7명인 반면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은 2.8명이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이 프랑스 전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도 외국인 여성과 프랑스 여성을 모두 합한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프랑스 여성들만 가지고 추계한 합계 출산율 1.7명보다 겨우 0.1명 밖에 높지 않다. 이는 외국인 여성들이 프랑스 합계 출산율을 겨우 0.1명 만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이 전체 국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프랑스 전체 평균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가임

기 여성 인구가 국내 전체 가임기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 외국인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 출산율 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가임기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밖에 되지 않아 전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외국인 여성들은 이민 전에 출산을 미루다가 이민 직후 급격하게 출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단년간의 자료만 가지고 평가해 볼 때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보다 정확한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통한 완결 출산율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정책적 함의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현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프랑스 출산율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변하여 인구 대체 수준 가까이 회복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 낳는 시점만 늦추었을 뿐 늦은 연령에도 출산하여 생애 전 기간으로 볼 때 2~3명까지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늦은 연령에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의 가족 지원 정책과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큰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 활동 참

4) 본 절의 내용은 'Heran and Pison(2007). Two children per woman in France in 2006: are immigrants to blame?, Population and Societies no. 432.'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한 만혼화 및 만산화 현상을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육아 휴직 등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초산 연령도 2000년 27.7세에서 2010년 30.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내에서도 여성의 만혼화를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이 늦은 나이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필요에 보다 부응하는 보육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가임 기간 후반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모성 보건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사례가 주는 두 번째 시사점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출산율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국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 지원 정책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한 프랑스에서는 가족 부양에 대한 지원이 질병, 고령, 근로자 상해와 함께 4대 사회 보장의 영역에 포함된다. 단지 몇 개의 산발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니라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국가 사회 보장을 안에서 가족 지원 정책 추진함으로써 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적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도 이제 국가 사회 보장 체계 하에서 추진될 시기가 왔다.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상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 사회 보장 정책으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